

사 내 한

CN 09-27



CHAIRPERSON NOTE

체어퍼슨노트

2009.07.10 (통권256호)

경제 이슈

- 세계 경제 수정 전망
- 국내 경기 완만한 회복세 전망

경영 노트

- 충성고객을 적극 확보하라

사회 트렌드

- 웹스터 신조어
- 2050년 한국은 인구소국, 노인대국

차이나 리포트

- 중국의 '국진민퇴(国进民退)'의 원인과 문제점

저널 브리프

- 최근 중국시장의 15대 키워드

洗心錄

- 하심(下心) 시즌

□ 세계 경제 수정 전망

- IMF 세계 전망 보고서(7월)에 따르면, 2009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4월 전망치보다 소폭 하향 조정
 - 세계 경기 : IMF는 세계 경제가 각국의 경기 부양책 등에 힘입어 경제 하강 속도가 완화되고는 있으나 회복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분석. 201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4월 전망치보다 0.6%p 상승한 2.5%로 예상
 - 선진국 : 미국의 성장률 전망은 4월에 -2.8%에서 7월에 -2.6%로, 일본의 경우, -6.2%에서 -6.0%로 상향 조정했으나, 유로지역은 -4.2%에서 -4.8%로 하향 조정
 - 신흥국 : 신흥국의 경우, 중국 성장률은 4월 6.5%에서 7월 7.5%로 1.0%p, 인도는 4.5%에서 5.6%로 0.1%p 상향 수정 전망
- 특히 2010년 세계 교역량 또한 1.0%로 2008년 3.3%의 1/3 수준에 그침

□ 국내 경기 완만한 회복세 전망

- 한국은행(10일)에 따르면 국내 경기는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하반기에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 : 2009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3.4%에서 하반기 0.2%를 기록, 전기대비로는 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연간으로는 -1.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 : 정부의 소비진작 대책, 자산가격 상승, 가계심리 호전 등에도 불구하고 소득여건의 개선 지연, 불확실성 대비 저축 유인 증대 등으로 상반기 -3.0%에서 하반기 0.3% 기록 전망
 - 설비투자 : 상반기 -20.9%에서 하반기 -9.1%로 감소폭 축소
 - 건설투자 : 공공부문 SOC 투자 확대로 하반기 2.5% 기록
 - 수출 : 세계 교역 여건 개선으로 상반기 -9.2%에서 하반기 3.7%로 개선
- 한편, 고용시장은 정부 일자리 대책의 효과로 전년동기대비 상반기중 16만 명 감소에서 하반기 7만 명 감소로 축소될 전망이고 2010년에는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취업자 수가 14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충성고객을 적극 확보하라***

- **최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보다는 제품의 질이나 사용만족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임**
 - 또한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상품후기, 입소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러한 구매 특성에 맞추어, 미국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과거와는 다른 판매 전략을 제사하였음

전 략	내용 및 사례
1. 브랜드 인지도가 전부는 아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구매시 대체로 TV광고 등을 통해 구매 상품의 초기 후보군을 선택하지만, 추가정보 수집후 오히려 브랜드 선택폭을 늘림 · 자동차 구입 예정자들이 초기 선택한 브랜드는 평균 3.8개지만 정보수집과정을 거치면서 선택가능 브랜드 개수를 6개로 늘렸음
2. 소비자를 끌어당겨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엔 기업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면, 현재는 온라인 사용후기, 주변인 추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을 당겨야 함 ·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영업사원들을 통해 마케팅활동에 주력했던 GM, 크라이슬러는 몰락한 반면, 지금도 건재한 도요타, 혼다는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중시했음
3. 충성 고객을 확보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이상의 소비자는 특정 상품 구매후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한 상품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인 충성고객’으로 변신 · 미국 자동차 보험회사인 가이코(Geico)는 적극적인 충성고객을 활용, 꾸준히 시장을 넓히고 있음

- **기업은 소비자들과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소비자의 니즈와 소비패턴에 빠르게 반응해야 할 것임**
 - 적극적인 블로그(Blog) 활동, 소비자 만족센터 등 활용하여 충성고객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브랜드전략을 모색해야 함

* “맥킨지 ‘새 마케팅 전략’ 분석”(한국경제신문, 2009.7.8) 참조

□ 웹스터 신조어*

- 미국의 간판 영어사전 출판사인 메리엄웹스터가 대학생용 사전에 신조어 100여 개를 새로 등재
 - 이번에 실리게 된 단어들은 기술 발전, 환경·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불황 등 세태를 반영
- 주요 신조어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블로그(vlog) : 동영상을 게재한 블로그(blog)
 - 웨비소드(webisode)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TV 드라마
 - 스테이케이션(staycation) : 집에서 보내는 휴가(stay + vacation)
 - 카디오프로텍티브(cardioprotective) : 심장에 좋다는 의미
 - 로카보어(locavore) : 집 근처에서 생산된 음식만 먹는 사람
 - 그린칼라(green-collar) : 환경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 프레너미(frenemy) : 겉보기엔 친구지만 알고 보면 적(敵)인 사람

□ 2050년 한국은 인구소국, 노인대국

- 우리나라 인구가 저출산의 영향으로 2050년에는 지금보다 641만 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4234.3만 명)
 - 한국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낮은 출산율 때문인데,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05~2010년 기준 1.13명으로 유럽(1.50명)과 선진국(1.64명)보다 낮음
 -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
 - 또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는 2010년에는 30개 OECD 회원국 중 27위이지만 2050년에는 1위로 올라가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65세 이상 비율은 2010년 11.0%에서 2050년 38.2%로 증가)
- 이에 따라 2010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15로 선진국(24)보다 낮으나 점차 높아져 2030년 38로 선진국(36)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됨
 - 2050년에는 72로 선진국 평균 45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임
 - ※노인부양비: 15~64세 사람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연령층(65세 이상)의 비율

* “웨비소드 보면서 스테이케이션 할래... 뭘소리?”(한국경제신문, 2009.7.11)

□ 중국의 ‘국진민퇴(国进民退)’의 원인과 문제점

■ (개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경기부양 과정에서 소위 민간부문이 구축되는(crowding-out) ‘국진민퇴’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최근 COFCO*는 사모(私募) 기과투자자와 중국 최대 유제품 업체인 명뉴(蒙牛)의 지분 20%를 획득하여 최대 주주가 됨
 - 1998년 100만 위안(2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명뉴는 2008년 매출액 238억 위안(5조 원)을 달성, 초고속 성장을 통해 업계 1위 등극
 - 2008년 유제품 멜라닌 사건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중국 유제품 업계 전반이 자금난을 겪게 됨
- COFCO의 출자로 명뉴는 자금난으로부터는 자유로워졌으나, 국유 자본의 지배력 강화로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명뉴는 최근까지 최대 30억 위안(6천 억 원) 정도의 자금 부족에 시달려 왔으나 COFCO 컨소시엄으로부터 50억 위안의 자금을 수혈 받음

■ (주요 내용) ‘국진민퇴’ 현상은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

- 올 들어서만 항공, 교통, 철강, 부동산 등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국진민퇴’ 현상이 집중적으로 일어남
 - 항공업계에서는 스촨항공(四川航空)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잉론허공(鹰联航空)을 2.28억 위안에 인수
 - 국유은행들은 상해, 절강 지역에서 다수의 민자(民资) 고속도로의 운영권을 인수, 직접 경영에 나서고 있음
 - 중국 최대 바오강(宝钢)은 Ningbo 철강(宁波钢铁)의 지분 56%를 인수, 산둥 철강(山东钢铁)은日照철강(日照钢铁)을 강제 합병하여 구조조정 진행
 - 광싱(方兴)이 북경시 중심 최고가 상업 부지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광주, 상해 등 주요도시에서도 정부 계열 부동산 업체들이 개발 부지를 싸쓸이함

* COFCO(China National Cereals, Oils and Foodstuffs Corporation)는 곡물 수출입,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요 국유기업 중 하나임

< 최근 주요 ‘国进民退’ 사례 >

	시점	인수자	비고
잉랜항공(鷹聯航空)	09. 04	스촨항공(四川航空)	2.28억 위안, 만성적자 해결
닝뱌철강(寧波鋼鐵)	09. 03	바오강(寶鋼)	20억 위안, 자금난 해결
르자오철강(日照鋼鐵)	09. 01	산둥철강(山東鋼鐵)	강제 합병, 구조조정
상해, 절강 고속도로	09. 02	국유은행	자산 인수, 운영권 취득
북경 최고가 부지	09. 06	팡싱부동산(方興地產)	최대 민간 업체 VANKE 배척

자료 : 중국 내 주요 일간지 내용 정리.

- (원인) 경기 침체로 인해 전반적으로 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국유기업이 경기부양 자금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임
 - 글로벌 금융위기로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경기가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중국기업들의 자금난이 점차 심화
 - 2008년 4/4분기부터 급속히 재고 증가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생산 활동과 이익 공간이 한계에 몰림
 - 4조 위안(80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 자금은 대부분 정부 신용이 보증하는 국유기업에 유입
 - 경기부양 자금의 상당부분은 정부가 발주한 인프라 건설 사업에 투입되었으며, 1/4분기 급증한 신규 대출 중 3/4 이상이 국유기업으로 유입
- (문제점) 민간부문에 대한 구축효과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재정확대 정책의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음
 - 초기에 ‘国进民退’ 현상은 자본집약적인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집중되었으나 점차 경쟁을 필요로 하는 부문으로까지 확산
 - ‘멍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유제품 제조업은 고도의 경쟁을 필요로 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탈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음
 - 과거 ‘버블 형성’의 온상이던 부동산 시장에서도 국유기업 비중이 작년 말 8%에서 20%로 상승하여 버블 형성을 부추기고 있음

□ 최근 중국시장의 15대 키워드*

- 닷케이비즈니스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내수 및 소비 진작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는 중국시장의 변화를 15개의 키워드로 표현하였음

< 중국시장의 15대 키워드 >

구분	키워드	내 용
내수	라동내이슈 (拉动内需)	· 4조 위안의 긴급 경제대책 등으로 수출의 급격한 감소에 고전하는 중국경제의 체질을 바꾸자는 의미
	시가오동디 (西高東低)	· 수출의존도가 낮고 금융위기의 영향도 낮은 내륙지역이 성장의 엔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의미
	2급·3급 도시 (2級·3級 都市)	· 내륙부의 주요 도시들로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지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이지우환신 (以旧换新)	· 6월에 발표된 자동차 및 가전제품 교환 촉진책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됨
	샤오페이취엔 (消費券)	· 내수확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부터 각 지방정부가 잇따라 발매하고 있는 무료쿠폰임
	시산자오(西山角) 경제권	· 내륙의 3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중국 서부의 새로운 경제권을 뜻하는 말
	치차샤샹 (汽车下乡)	· 3월에 발표된 농촌지역 자동차 및 이륜차 보급 지원책을 뜻함
	자디엔샤샹 (家電下乡)	· TV, 세탁기, 휴대전화 등 가전제품의 농촌 보급 지원책을 의미하며 지정된 기종을 구입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13%까지 보조금이 지급됨
소비	바스허우(80后) · 지우스허우(90后)	· 8, 90년대에 태어난 젊은 세대를 의미하는 단어로 1자녀가정에서 태어나 자기투자과 소비에 적극적임
	핀커(拼客)	·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공동 구매자를 구하는 소비자를 지칭하는 말
	타오바오(淘宝)	· 1억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중국 최대의 쇼핑 사이트 (www.taobao.com)
	위에광주(月光族)	· 즐기는 것을 지상목표로 삼아 월급을 모두 써버리는 계층을 의미함
	성난성녀 (剩南剩女)	·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으며 유행을 선도하는 도시의 젊은 독신남녀
	산사이(山寨)	· 불법 복제품을 이르는 말로 “짝퉁”에 해당함
	거우거우주(抠抠族)	· 절약을 위해 쿠폰을 열심히 챙기는 소비자를 뜻함

* “고향에 보내줄 가전품에 13% 보조”(매경Economy, 2009.7.15) 참조

□ 하심(下心) 시준

불교의 가르침 중에 ‘하심’이라는 말이 있다. 하심이란 ‘마음을 낮춘다’는 뜻이다. 스스로 자랑하는 마음, 오만한 마음, 과시하는 마음을 낮춰서 남의 잘못을 보기 이전에 자신의 허물을 되돌아보라는 의미이다.

미국 사회의 원형을 창조해 낸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프랭클린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계발, 선하고 덕 있는 삶을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면서, ‘바르게’ 살기 위한 13가지 습관을 기를 것을 부탁했다.

1. 절제 : 지나칠 정도로 먹지 마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마시지 마라.
2. 침묵 : 자신이나 남들에게 이로운 것만을 말하라. 쓸 데없는 대화는 삼가라.
3. 정돈 :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두어라. 일은 미루지 말고 제 시간에 끝내라.
4. 결단 : 해야 할 일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 반드시 실행하라.
5. 절약 :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유익한 일 외에는 돈을 쓰지 마라.
6. 근면 :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언제나 유익한 일을 하라.
7. 성실 : 남에게 상처를 주는 속임수를 쓰지 마라. 진정성과 공정함을 잊지 마라.
8. 정의 :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도리에 어긋나 이익을 취하지 마라.
9. 중용 : 극단을 피하라. 온당한 이유가 있는 한 상대의 분노를 기꺼이 참아라.
10. 청결 : 몸과 의복, 주거의 불결함을 보아 넘기지 마라.
11. 침착 : 사소한 일, 일상적이거나 불가피한 일들에 흔들리지 마라.
12. 순결 : 건강이나 자손 때문이 아니라면 성관계를 삼가라.
13. 겸손 : 예수, 소크라테스를 본받으라.

프랭클린 자신은 마지막 항목인 겸손이 늘 문제였다고 고백하였다. 순서대로 12가지 항목을 체크하여 다 만족한다고 느낀 순간 마지막 ‘나는 겸손한가’에는 그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행동하는 자는 항상 양심이 없다.
관찰하는 자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양심은 없다. ”

- 피테 (1749~1832) : 독일 시인, 소설가, 극작가